Book Information | 신 | 간 | 도 | 서 | 안 | 내 |

내 영혼이 따듯했던 날들 저자 / 포리스터 카터 .

인디언의 세계를 어린 소년의 순수한 감각으로 묘사한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 같은 장편소설이다. 참된 인간성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지향해야 할 곳이 어딘가 알려 주는 소설로 전미 서점상연합회가 설정한 제1회 에비상을 수상했다. 저자는 스스로를 체로키의 후예라고 생각하는 인디언으로 개인적 체험을 그대로 담아 소설로 재창조해냈다.

소설은 졸지에 부모를 잃은 '작은나무'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산속에서 함께 지낸 날들을 그리고 있다. 주인공 '작은나무'가 할머니로부터 "영혼이 빠져나간 마른 통나무만을 땔감으로 쓰는 이유"를 배우며 자라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숲과 산에도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준다. 이 책은 작은 나무의 눈을 통해 환경문제, 인종문제, 나아가서는 교육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진리를 던져 준다. 자연과 교감할 줄 모르는 어른들이 먼저 읽어야 할 아름다운 동화이다.

포리스터 카터(Forrest Carter 1925 ~1979)